

21세기 미국 교육의 전망: 보수적 물결과 진보적 전통

이 성 호

(한림대)

I.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총 3년 간 서울대 미국학 연구소가 주관해 온 본 연구의 큰 주제는 21세기 미국 문화에 대한 전망이고, 필자는 그 중 교육의 영역을 맡아 왔다. 과거 미국 교육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주요 쟁점 등을 다루었던 지난 2년 간의 연구는 어찌 보면 올해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본문의 초점은 21세기의 미국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하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이렇게 볼 때 이 글은 미래에 대한 예측의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점(fortune telling)이나 예언(prophecy)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과 추이를 바탕으로 한 추측(conjecture)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전망의 대상 자체가 가변적이라는 점이 이같은 예측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문에서 미국 교육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는데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그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21세기의 미국 교육의 방향과 흐름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본문을 작성함에 있어, 필자는 미국의 문화 및 교육에 대한 방향, 정책, 실태, 논점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 *U.S. Society & Values*(미국무성 제작)라는 전자 간행물(electronic journal)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이

자료가 미국 교육의 현상태를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것이 비록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작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미국 교육의 추세에 대한 다양한 견해 그리고 각종 쟁점에 대한 찬반 양론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미국 교육의 방향: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미국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미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대단한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능력(competence)이 향상되고 바람직한 성품(character)이 형성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길러짐은 물론, 교육 그 자체가 개개인의 중요한 업적이 되어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흔히,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 열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많은 한국 부모들에게 있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란 오직 상급 학교 진학 준비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교육열은 다소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학교의 질에 따라 특정 지역을 떠나기도 하고, 그곳으로 모여들기도 한다. 사실 교육은 미국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최대 쟁점은 경제도 국방도 외교도 아닌 바로 교육인 바, 정치인들은 너나 없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Branson in *U.S. Society & Values*, 2000, 1).

그렇다면, 현재 미국 교육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아울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교육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과 학교 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위협과 함께 교육에 대한 위기 의식을 경험한다. 이 당시 미국은 외부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강력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의 약화와 제품의 질적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교육 특히 공립 학교 교육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매도되었으며, 획기적이고도 대대적

인 교육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비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당시 미국의 교육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했고, 중산층 백인들은 도시의 공립 학교를 기피하였으며, 교육 재정은 날로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교사들의 파업은 빈번했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학교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었음은 물론,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의 각종 송사(law-suit)를 피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인기에 영합하려는 일부 교육학자들의 전통 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교사의 권위와 지식 교과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데 기여하였다(Toch, 4-8). 혹자의 표현을 빌면, 교육의 유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Romantic'한 교육관이 지배적이었으며, 학교에서 지적 강인성(intellectual rigor)을 강조하는 풍토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Hirsch, 2-3).

그런데 1980년대 초반 미국 사회 전체에 팽배했던 위기 의식의 주범으로 질타 당하던 미국의 학교 교육은 지난 15년 동안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과거와 비교해 별반 감소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공립 학교(public schools)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육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일부 정치인들이나 교육 행정가들의 자만 complacency)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향상'이라 함은 물론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1980년에는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고교생이 전체의 35%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절반을 넘는 56%의 고교생이 졸업 직후 바로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초반 60%에 머물던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졸업과 동시에)이 1999년에는 67%로 증가하였다. 이와 아울러,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 중 고교 졸업 학력의 소지자가 1971년에는 78%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현재 미국 고등 학생들은 고등 수학과 과학 과목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에는 불과 11%의 고교생이 삼각함수나 미적분 같은 교과를 이수했으나, 1998년의 통계에 의하면 그 수는 27%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고등 과학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도 31%에서 60%로 늘었다고 한다(Riley in *U.S. Society & Values*,

2000, 1-2).

앞서도 밝힌 바 있듯이, 본문의 주된 목적은 미국 교육의 현 추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미국 문화의 흐름을 조망하는 것이다. 즉, 위에서 열거한 긍정적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일보다는, 그 변화의 방향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본문의 취지에 보다 합당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본문의 논의를 오늘날 미국 교육의 몇 가지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토대로 전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보다 높은 학생 평가의 기준(higher standards)과 학교의 책무성(accountability)

1983년에 출판된 'A Nation at Risk'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는 미국 교육에 대한 통렬한 자기 비판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가혹한 힐책의 초점은 공립 학교 교육(public education)에 맞추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의 90% 정도가 공립 학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대학생의 경우 약 80%가 공립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 개혁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1989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George Bush에 의해 50개의 주지사 전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교육 정상 회담(education summit)'에 소집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담의 산물로 나온 것이 미국이 200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Goals 2000'였다. 이를 모태로 한 'Educate America Act'라는 법안이 1994년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연방 정부의 지원 하에 주 정부로 하여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곧 주별 기준(statewide standards)으로서, 1996에는 14개 주에서만 채택되던 주별 기준 제도는 현재 49개 주에서 실시 중이다(Danitz in *U.S. Society & Values*, 2000, 1-2). 물론 현재의 이러한 기준들은 주에 따라 다르며 소위 통일된 국가 기준 혹은 national standard는 지방 분권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적 전통을 감안할 때 다소 요원한 가능성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각 학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나 능력, 특히 독해, 수학 및 과학 등의 기초 지력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책무성이란 곧 이 같은 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Riley in *U.S. Society & Values*, 1997, 2-4). 즉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등급을 판정하고, 주별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 주 정부의 주관 하에 재조직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역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미 많은 주에서 기준에 미달된 학생들에 대한 자동 진급(social promotion; 학년말의 성적에 관계없이 진급시키는 제도)을 금함은 물론 졸업조차 유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별 기준 제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우선, 이 제도가 학교 교육의 권한과 책임이 궁극적으로 지방에 부여되는 local control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 행정은 federal, state, local의 3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은 전국적으로 15000여 개에 달하는 local school district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동에서 연방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교육 내용의 결정권에서부터 교사의 임용에 이르는 교육의 거의 모든 사안들은 아직까지도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관이다(Doyle in *U.S. Society & Values*, 2000, 3-5). 둘째로, 학교 교육 자체가 지나치게 평가에 예속되어 그 내용이 편협해질 수 있으며, 학습이 암기 위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중요한 장래가 단순히 평가 점수에 의해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별 기준과 교육의 책무성은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추세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지난 20여 년 간에 미국 학교에서 일어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열거해 보기로 한다. 우선, 최근 들어 고교 졸업 이수 학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가 학문적(academic)인 영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경향이다. 다음으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경우 보다 어려운(demanding)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 학점 인정 과목에 대한 이수 평가인 Advanced Placement Test에 응시하는 학생수가 1984년에는 1000명당 50명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

는 무려 3배에 가까운 131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현상들이 전적으로 주별 기준 제도의 확산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교육 결과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풍토가 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추세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교육에 관한 연방 정부의 역할과 위상의 강화이다. 물론, 이 것이 반드시 교육의 중앙 집권화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학습자의 지적 수월성에 초점지어 지고 있는 미국 교육의 현재의 추이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 우수 교사의 유치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의 질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truis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진리인 듯 하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사의 질을 강조하는 수사학(rhetoric)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전자는 문제의 근원을 교사보다는 제도로 보는 반면, 후자는 교사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이 주로 전자를 사용해 온데 비해, 1960년대의 교육 개혁 운동은 후자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5년 간 미국은 교사의 낮은 처우를 인정하고, 각종 incentive의 부여나 merit system의 도입 등을 통해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왔다(Goodlad in *U.S. Society & Values*, 2000, 2). 이는 교사를 교육 개혁의 대열에서 소외시켰던 60년대의 접근 방법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을 진화함은 물론, 심정적 지지와 참여를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이에 비해, 현 정부 출범 직후 우리의 '교육 개혁'은 교사들을 부패한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도 부족해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1998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공립 학교 교사들의 100%가 학사 학위 소지자이고, 45%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90%가 주 정부 교사 자격증 소지

자 내지는 기타 전문 자격증(advanced professional certificate) 소지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교사의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학 혹은 과학 과목의 교사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향후 10년 간 미국은 약 200만 명의 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 교사 자원을 발굴하여 훈련시키는 물론 이들을 교직에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California주의 경우, 교사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보다 낮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의 제도를 강구 중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를 양산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사 교육 체계에 대한 각종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바, 교육계의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교사 교육 기관(대학)과 현장 학교(초등 및 중등 학교)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교사 양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안전한 학교, 훈육, 그리고 인성 교육

지난 해에 일어났던 Columbine 고등학교 총기 살인 사건은 미국 사회를 커다란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다. 물론 학교 내의 총기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그 발생 지역이 폭력과 마약으로부터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주거 중심의 교외 지역(suburban area)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를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열거하면, 폭력이나 마약 등의 범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연대, 방과 후 program의 다양화, 훈육의 강화, 효과적인 인성 교육(character education)의 실시 등이다.

우선, zero tolerance란 학원 내의 총기 소지를 엄한 법으로 다스리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학원 내의 폭력을 추호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행정 당국과 지역 사회 그리고 종교 단체 등이 학교와의 연계 하에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다양한

방과 후 program을 통해 학생들을 거리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학생들의 출결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여 범죄 집단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Stetzner in *U.S. Society & Values*, 2000, 3). 실제로, 올해 미국의 전형적인 대도시 중의 하나인 Philadelphia에서는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일부 학생들과 진보적인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chool district 운영 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방안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인성 교육이다. 사실 인성 교육이라는 용어는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처럼 들린다. 이 보다는 오히려, 정서 교육(affective education)이니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니 하는 개념들이 더 미국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성 교육이 초기 미국 교육에서 전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성 교육은 한 동안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의 개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구가하는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에 밀려 종적을 감추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Schaeffer in *U.S. Society & Values*, 2000, 1-3). 여기서 말하는 인성 교육이란 우리의 덕성 교육과 매우 흡사한 개념이다. 즉 사회 생활에 필요한 덕목이나 가치의 내면화를 가리킨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인성 교육은 '도덕'이나 '바른 생활'과 같이 교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여기서는, 현재 다수의 미국 학교에서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Hecht in *U.S. Society & Values*, 2000, 4-6).

미국의 학교 교육 활동 속에는 이미 '지역 사회 봉사 활동(community service)'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봉사 학습의 특이한 점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경우 봉사가 주가 되는데 비해 이 경우는 문자 그대로 봉사와 학습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의 공원에 있는 꽃밭을 돌보는 것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이지만, 이 활동이 생물 교육 --식물의 생태와 토양 및 기후와의 관계--과 연결될 때 이는 곧 봉사 학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 학습의 목적은 학생의 지적 발달, 정서적 성장, 직업 교육, 그리고 시민 교육 등의 4가지로 설명

될 수 있다. 또한 봉사 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학교들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곧 훈육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는 교육에 관한 한, 학생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적 통제(external control)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전통적인 지혜(conventional wisdom)'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4. 교육에 관한 선택권

전술한 바 있듯이, 미국의 공립 학교들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공립 학교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데, 이러한 현상은 고 학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대도시의 경우 보다 심각하다.(사실 공립 학교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대도시 학교에 국한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같은 불만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종래의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크게 특정한 교육 program에 따른 학교의 선택, home schooling, charter school, 그리고 voucher system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Green in *U.S. Society & Values*, 2000, 3-7). 이 중 home schooling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100만 정도로 전체 5300만 학생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1983년 Kansas주의 Wichita에서 약 50개의 가정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 세가 급격히 확산된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Dawkins in *U.S. Society & Values*, 2000, 3-4). 한편, 교육적으로 열악한 대도시의 대안 학교로서의 charter school(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 역시 전국적으로 37개 주에 약 1700개 정도로서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이와 아울러,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조하는 voucher system은 주민들의 세금

이 사립 학교의 재정으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그 사립 학교가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하여 현재 연방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Riley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현재는 전체 학령 인구의 약 3% 정도가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 수자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미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 선택권에 관한 논의가 종교적 자유나 문화적 다양성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선택권이란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나 대안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바, 이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5. 교육의 다양성

오늘날의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인종적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여년 간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의 수는 1200만에 이른다. 만약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머지 않은 시점에서 소수 인종의 숫자가 백인을 추월할 것이라는 계산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21세기 말에는 소수 인종이 미국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 특히 내용의 다양성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 다원성은 현재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더욱이 미국 교육의 다양성의 전통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여는 현 시점에서 미국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이 규정지어 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의 2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우선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미국 교육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지적인 수월성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교육에 대한 과거의 진보적 신념을 송두리째 방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어찌

면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란 교육의 수월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즉 수월성의 성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개념으로 풀이될 수 있다. 환언컨대, 현재 미국 학교 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program의 의의는 단순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데 있다기 보다는, 학습자의 상이한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한편 이들 program은 그 영역 별로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다(Lewis in *U.S. Society & Values*, 2000, 1, 3-7).

우선,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이다. 이는 미국 문화의 특징인 다원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방 교육부 장관인 Riley는 2중 언어 교육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California주는 2중 언어 교육이 영어 문맹 퇴치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주민 투표를 통해 이를 폐지했다.) 다음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들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영재나 특정 방면의 재능아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이다. 끝으로, 학습 장애아(disability)들을 위한 교육을 들 수 있다.

6. 정보화 시대의 교육

흔히 '정보화의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미국의 학교 교육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자면, 급속히 증가하는 학교 컴퓨터 보급율,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 그리고 소위 '온라인(online)' 수업 등이다. 우선 컴퓨터의 보급율부터 살펴 보면, 지난 1992년 학생 19명당 1대에 이르던 것이 1999년에는 6명당 1대가 되어 있으며, 미국 공립 학교의 95%가, 그리고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의 63%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O'Neil in *U.S. Society & Values*, 2000, 1-4).

이렇게 볼 때, 컴퓨터의 공급 그 자체는 이제 미국 학교에서 거의 완전한 수준에 달했다고 할 수 있으며, 남은 과제는 이들의 활용이다. 현재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 각종 정보와 지식 그리고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인

적 자원을 접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역할을 수동적인 정보 수집자에서 능동적인 지식 재구성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교육계는 정보화 교육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연 수입 \$75,000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저소득층에 비해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9배나 높으며, 인터넷을 사용할 확률은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격차를 소위 'digital divide'라고 칭하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과 인터넷 사용료 할인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III.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미국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은 물론 오늘날의 미국 교육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최소한 가까운 미래의 미국 교육에 대한 조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위에서 열거한 교육의 추세들이 21세기 미국 교육의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필자의 생각이다.

단적으로 표현컨대, 21세기의 미국 교육은 지적 수월성(excellence)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미국 교육은 평등이라는 기치 하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이제 21세기는 양적 팽창을 토대로 한 우수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전개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즉 'education for more'에서 'education for better'에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얼마 전 연방 교육부 장관인 Riley의 연설문에도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는 미국의 대학 행정가들에게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기준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 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반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제안하였다.

지적 수월성을 위한 교육은 보수적 교육의 전통이다. 즉, 21세기의 미국 교육

은 당분간 보수화의 물결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바로 인성교육의 재등장파, 학교의 훈육적 기능의 강화이다. 그러나 이것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전통교육에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육의 본연을 되찾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와 아울러 21세기의 미국 교육은 과거 이룩한 진보적 유산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 미국 교육은 오랜 기간의 진보적 행보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교육의 민주화, 다양성의 수용 그리고 평등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이 같은 전통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현재의 미국 교육이 학생 개인과 개별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도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21세기의 미국 교육은 진보적 전통이라는 배를 타고 보수적 물결을 따라 항해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anson, M.S., "At the Core of U.S. Education, A Passion for Learning",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Danitz, T., "The Standards Revolution in U.S. Schools",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Dawkins, S., "Innovation and Evolution at Work",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Doyle, D., "The Community and the Classroom",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Green, R., "U.S. Education: the Issue of Choice",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Goodlad, J. I., "Rediscovering Teacher Education: School Renewal and Educating Educators",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Hecht, D., "Peer Help through Service: Learning Helpfulness",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Hirsch, E. D., *The Schools We Need*, N.Y.: Doubleday, 1996
- Lewis, A.C., "Diversity in U.S. Education",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O'Neil, J., "U.S. Students and the Technological Evolution",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Riley, R., "Foundation of a Nation -- Strong and Effective Schools",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2, No.4, 1997
- Riley, R., "A Snapshot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oday",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Schaeffer, E., "Implementing Character Education",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Stetzner, K., "How Safe are our Schools?", U.S. Department of State, U.S. Society & Values, Vol.5, No.2, 2000
- Toch, T., *In the Name of Excellence*, Oxford Univ. Press, 1991

<Abstract>

Prospect of the Americ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Its Conservative Wave and Progressive Legacy

Lee, Seongho

In this paper, I intended to demonstrate major trends of the Americ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get a prospective view of the American culture in the future. In doing this, at first, I investigated its present status, concentrating on the current issues, controversies, and directions of the U.S. education and schools today. Based upon this investigation, I argued that the U.S. education, especially its public education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since 1980s despite Americans' continuing discontent with public schools. I also contended that this enhancement was explainable via fundamental shift of U.S. education from 'progressive' to 'conservative', i.e., from liberal ideals of education to academic excellence and discipline; the shift would be a irreversible trend of the Americ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By claiming this, I did not mean the abolition of its progressive legacy; rather, I made it clear that invaluable contributions of progressive tradition such as educating diversity, emphasizing democracy, fulfilling equality, etc. would be preserved.

The followings are some of the main orientations of the current American education, which, I believe, will dictate its future in the 21st century.

1. high academic standards for students
2. accountability of schools based upon students' performance
3. emphasis on discipline and character education
4. improvement of teacher education and recruitment of high quality teachers
5. education for the information age